

靑 - 한나라 내주 '민생회담'

'개헌'은 의제서 제외...사학법·사법개혁 의견 조율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경제대책 대표가 이르면 내주 초께 청와대에서 회동한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재완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은 30일 비공개 접촉을 갖고 가급적 내주 중 노 대통령과 강 대표가 만나 개헌문제를 제외한 민생경제대책과 2월 임시국회 법안처리 문제를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이 전했다.

양자회담이 성사되면 2005년 9월 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간 '연정

회담'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간 단독 회동이 이뤄지게 된다.

이날 오전 1시30분간 진행된 실무접촉에서는 이병완 실장이 개헌문제를 회담 의제에서 배제하자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해 논의가 급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은 개헌문제를 의제에서 제외할 것이라 관련해 "청와대가 야당과 그런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폭넓게 만나겠다는 대화 우선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 의제에 대해 윤 수석은 "2월

국회에 묶여 있는 민생·개혁 법안이 많다"며 "사법개혁 관련 법안과 사학법안 등 여야간 약간의 견해차로 묶여 있는 것을 풀면서 민생을 얘기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 요구사항인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 협상 테이블에서 좋은 방향으로 얘기가 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나라당 핵심당직자는 "노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연착륙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했고, 청와대측도 제1야

당의 협조가 있어야 국정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양측은 의제 및 회담일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2월1일 2차 실무접촉을 갖기로 했다. 추가 협의에는 각각 청와대와 한나라당측에서 변양근 정책실장과 전재희 정책위의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한나라당 외 다른 야당 대표와도 회담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엄동연發 '집단 탈당' 터지나

광주·전남 강경 신당과 "일단 지켜보자" 관망 "김한길·강봉균 등 내달 5일 탈당할 것" 관측

열린우리당이 지난 29일 중앙위원회 의회 당헌 개정을 계기로 '공중분해' 위기는 넘겼다. 그러나 30일 엄동연 의원(광주 서갑)이 예정대로 탈당함에 따라 오는 2월 5일을 전후한 '대거 탈당설'이 거론되는 등 내부 기류는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이다.

일단 광주·전남지역 강경 신당과 여당 의원들은 엄동연 의원의 탈당이 현실화됨에 따라 탈당 시기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으나

당헌 개정을 계기로 당내 분위기가 관망 쪽으로 흐르자 상당히 위축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영동포당사에서 전대 준비위원회를 열고 31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 및 전대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지도부의 합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등 2·14 전당대회에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분위기에 나섰다.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 분위

집기에 나서면서 강경 신당과 내부에서는 급진적 기류가 주춤하면서 관망세가 강해지고 있다. 전당대회의 정상 개최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굳이 당을 뛰쳐나가 신당을 추진할 명분과 동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희망21' '민평련' '실사구시' '안개교' '국민의 길' 등 여당 신당과 5개 모임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일단 지켜보자'는 공감대만 확인했다.

그러나 일부 강경파들은 엄동연 의원이 이날 예정대로 탈당을 결행함에 따라 오히려 목소리를 키워 탈당 기류 확산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김한길 원내대표와 강봉균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다음 달 4일이나 5일째 원내교섭단체(20명) 규모의 집단 탈당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시기적으로 탈당을 결행하기에는 전당대회 직전인 10일 전후보다는 4일이나 5일이 적당하다는 것이다.

'희망21'의 양형일 의원이 "이제 각자가 결정해야 할 상황이 온 것 같다"며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동료 의원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열린우리당 엄동연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일해 공원' 명칭 확정에 지역정치권·시민단체 반발

경남 합천군이 합천읍에 조성한 공원의 명칭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호를 딴 '일해공원'으로 확정할 데 대해 광주·전남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30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합천군이 공원 명칭으로 삼은 '일해'는 1980년 당시 광주시민을 무참히 학살한 장본인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호"라며 "이는 정의실현에 역행한 처사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의회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완전하고 정당한 명예회복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명분과 실리가 있더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된 현상·성역화 사업에 반대한다"며 명칭 변경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서에서 "일해공원 추진은 민주주의

에 대한 배신이자 역사에 대한 도전"이라며 "학살자 전두환을 우상화하거나 성역화하는 일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도 공동 성명을 내고 "일해공원은 한국 국민 야스쿠니 신사를 짓고 살인자를 추앙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등 광주·전남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전두환(일해)공원 반대 광주·전남대책위로 29일 성명을 내고 "일해공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비수를 갖는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31일 오후 2시 5·18기념재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응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공무원연금개혁 알고나 말하라" 박명재 행자, 유시민 복지 면박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의 시작 직전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 (제3자인) 언론에 대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항의하는 등 유 장관에게 극도의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지금 나와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정부의 확정안도 아니고 시안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혁안을 만드는 과정인데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유 장관을 '나무뺨'하는 후문이다.

특히 박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할 말이 있으면 정회하지 말고 하라"고 면박을 준 뒤 "할 말이 있다면 직접 행정자치부에 할 일이지 (제3자인) 언론을 통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꼬



〈박명재 장관〉 〈유시민 장관〉

與 광주시당·전남도당 당원협 선거 재개

열린우리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다음달 2일부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예 지구당위원장) 및 운영위원, 대의원 선출을 재개한다.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따르면 29일 중앙위원회에서 기초당원제를 도입하기로 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잠정 보류했던 선거를 재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 남구와 북을, 광양·구례 당원협의회가 2월 기초당원대회, 대의원 선출을 재개한다.

전남의 경우 13개 당원협 가운데

합평·영광은 노급노, 나주·화순은 정을진, 고흥·보성 등 정동식, 무안·신안 등 박병래씨를 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한 바 있다.

이런 당협 운영위원장 선거에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상당수 출마할 예정이다. 하지만 광주·전남 의원 가운데 일부는 이번 주내 탈당 가능성이 제기돼 기초당원대회 과정에서 꺾릴까 예상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2007년 제3회 압류재산공매공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에 의한 압류재산을 아해와 같이 공매공고 합니다.

1. 공매재산의 표시 및 매각조건: 공고재산의 표시 목록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관리번호	소재지	용도	종별	수량(㎡)	매각예정가격
2004-32898-003	전라남도 나주시 아람동 515-43, 515-44	대지	대지	88㎡	10,848
2005-08839-001	전라남도 보성군 노곡면 김평리 77-1	담양주택	건물	116.1㎡	29,025
2006-14384-002	제주도 남제주구 대정읍 보성리 61.66.66	임야	임야	6,081㎡	19,862
2006-20223-001	전라남도 나주시 아람동 201-8, 201-9	근린생활시설	대지	365㎡	339,168
2006-20278-002	전라남도 보성군 반곡읍 학평리 282-1	전	전(지번)	756.823㎡	6,229
2006-20278-004	전라남도 보성군 반곡읍 학평리 287-2	임야	임야(지번)	7,128.823㎡	9,555
2006-20288-002	전라남도 목포시 용현동 387-8, 387-17	대지	대지	206㎡	81,038
2006-20285-001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평사리 341, 343	임야	임야(지번)	16,233㎡	9,140
2006-20288-002	전라남도 신안군 안평면 백평리 1468	임야	임야	1,081㎡	9,729
2006-21383-001	광주광역시 북구 오동동 1,083	전	전(지번)	185,072㎡	6,478
2006-22420-001	제주도 북제주군 현암면 현암리 3309-2	대지	대지	241㎡	6,748
2006-22439-001	전라남도 여수시 광구동 3382-1	임야	임야(지번)	549㎡	14,823
2006-23737-001	제주도 남제주군 삼산읍 나산리 2247-7	임야	임야	1,633㎡	19,836
2006-23884-0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마천리 1417, 1419	목장용지	목장용지	10,968㎡	78,780
2006-24056-001	전라남도 무안군 삼광면 향산리 1461	담	담	17,116㎡	20,592
2006-24521-001	광주광역시 동구 서문동 429	전	전	77.4㎡	21,420
2006-24525-001	제주도 제주시 연동 282-6 제3층 3222호	점포상가	대지(지번)	2.15㎡	7,600
2006-24526-001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마천리 981	임야	임야	684㎡	6,976
2006-24535-001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106	사무실	대지	1,841㎡	152,639
			건물	284.2㎡	
			마들기건물	124.05㎡	
2006-24571-001	전라남도 고흥군 괴약면 신곡리 신97-5	임야	임야	10,289㎡	10,289
2006-24778-001	전라남도 곡성군 사곡면 유림리 295-7	대지	대지	347㎡	11,451
2006-25044-001	전라남도 순천시 조계동 589의 14번지 조계동리타운 제111동 제103호	아파트	대지(지번)	40.311㎡	78,000
			건물	70.895㎡	
2006-25085-00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막수리22808-1	과수원	과수원	691㎡	15,899
2006-25471-001	전라남도 해남군 왜관면 화산리183-1	전	전	2,182㎡	17,456
2006-25586-0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아동 2115-13	대지(지번)	대지(지번)	20.19㎡	43,000
			건물	40.32㎡	
2006-25586-00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아동 2115-13	대지(지번)	대지(지번)	11.84㎡	26,000
			건물	23.84㎡	
2006-25586-0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아동 2115-13	대지(지번)	대지(지번)	20.19㎡	46,000
			건물	40.32㎡	
2006-25586-00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아동 2115-13	대지(지번)	대지(지번)	20.50㎡	45,000
			건물	40.33㎡	
2006-25586-00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아동 2115-13	대지(지번)	대지(지번)	20.19㎡	45,000
			건물	40.32㎡	
2006-25586-00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아동 2115-13	대지(지번)	대지(지번)	20.50㎡	46,000
			건물	40.33㎡	

2. 입찰 및 가결의 일시(기각과 정소)

회차	인터넷입찰(간접입찰)	개찰일시	입찰 및 가결의 정소	비고
10	2007. 03. 05. 10:00 ~ 2007. 03. 07. 17:00	2007. 03. 08. 11:00	은비드 (www.onbid.co.kr)	
11	2007. 03. 12. 10:00 ~ 2007. 03. 14. 17:00	2007. 03. 15. 11:00		
12	2007. 03. 19. 10:00 ~ 2007. 03. 21. 17:00	2007. 03. 22. 11:00		
13	2007. 03. 26. 10:00 ~ 2007. 03. 28. 17:00	2007. 03. 29. 11:00		
14	2007. 04. 02. 10:00 ~ 2007. 04. 04. 17:00	2007. 04. 05. 11:00		
15	2007. 04. 09. 10:00 ~ 2007. 04. 11. 17:00	2007. 04. 12. 11:00		

※ 2004년 10월부터 현경입찰 없는 인터넷 입찰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반드시 은비드에 회원가입 및 실명확인인 위한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기간 내에 은비드에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금액의 10% 이상을 지정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합니다. (입찰결과 유효자의 입찰 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된 환불계좌로 이차없이 환부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차 공제합니다.)

다. 입찰 후 개찰일시 전 공매최소수가 발생할 경우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지정된 환불계좌로 즉시 환불됩니다.

라. 입찰 진행시 은비드의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의 결정

가. 일반경쟁입찰(단독입찰도 가능)로서 계약불이행 제재점수가 이십인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나. 낙찰이 될 동시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은비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공매재산이 공유재산의 지분인 경우 국제정수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할 신고하는 경우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

5. 대금납부

가. 낙찰자는 매각결정 통지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납부하기까지 매수대금을 지정된 입금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007년 1월 31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사장

501-025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83 (대성약국 맞은편 한국투자증권빌딩 6층 소제)

TEL 062) 231-3000, http://www.onbid.co.kr

안 내

1. 다음 공매공고는 2007년 2월 14일 광주일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2. 압류재산은 국토계획법(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2호)에 의거 토지거래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매각조건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이 가능하나, 평일 09시00부터 17시 30분 사이에 전화 또는 인터넷(은비드 www.onbid.co.kr)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4. 입찰하려는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5. 공매 또는 경매에 의하여 주채권자(공매)의 채무를 충당하는 경우에도 주채권자(공매)에 대한 권리(주채권)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본사 은비드센터 및 각 지사에 은비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